

깡깡이예술마을 성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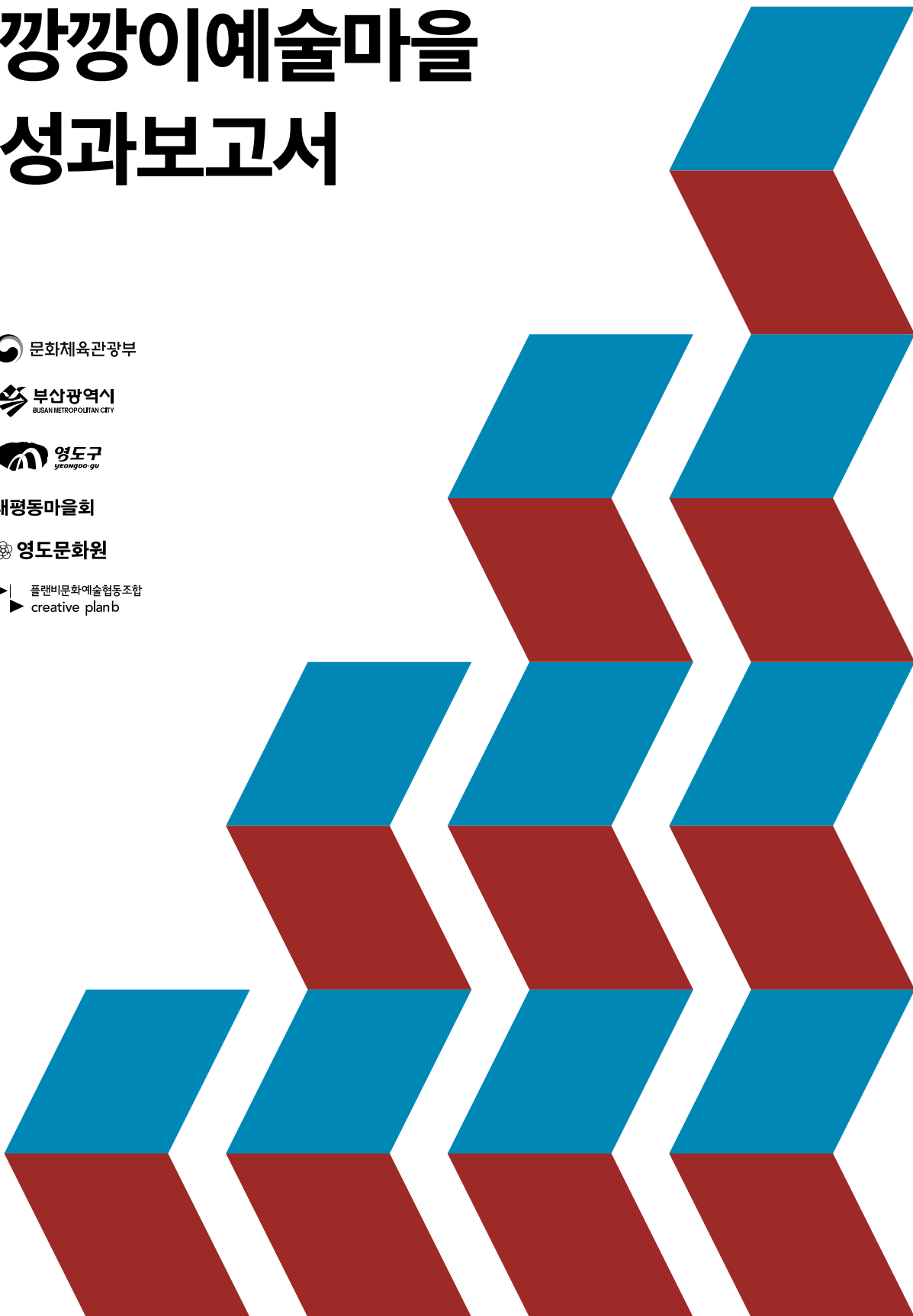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영도구
yeongdo-gu

대평동마을회

 영도문화원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creative plan b









목차

강강이에술마을에 대하여	10
--------------	----

바다를 건넌 사람들 — 강강이에술마을의 역사와 사람들

근대수리조선 1번지, 영도 대평동	14
살아있는 문화유산, 강강이 아지매	16
새로운 변화의 시작	18
마을공동체의 힘, 대평동마을회	20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 - 수리조선소와 공업사들	22

기억과 소통의 공간, 강강이에술마을 —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소개

기억과 소통의 공간, 강강이에술마을	30
사업 개요와 방향	32
사업성과	36
사업성과 — 문화 거점공간 조성	37
사업성과 — 공공예술과 디자인	38
사업성과 — 도시의 기록과 재현	42
사업성과 — 참여와 소통	43
사업의 추진과정	44

역사와 예술과 사람이 있는 여행 — 강강이에술마을 투어 및 콘텐츠 안내

강강이에술마을 투어 안내	48
강강이에술마을 거점공간	50
강강이에술마을의 다양한 콘텐츠	52

강강이 성과보고서 크레딧	56
---------------	----

공공예술 프로젝트

- 1 강강이마을 수리조선
- 2 컬러풀 스트리트
- 3 허물어진 단면의 미학
- 4 영도 사람들
- 5 경외로운 자연
- 6 우리 모두의 어머니
- 7 쇠뜨기
- 8 풍경
- 9 항구의 표정들
- 10 바로 그곳에
- 11 강강시티
- 12 두드림
- 13 관계 - 어울림
- 14 시간에 '땀'다
- 15 강강이마을
- 16 기억/벤치
- 17 바람과 시간
- 18 대평의 미래
- 19 발견
- 20 대평동의 소리
- 이것은 소음이 아니다
- 21 영도의 바람을 모아
세계로 올려 퍼지게 하다
- 22 사운드 브리어 메우치
- 23 구름가로등
- 24 그때 왜 그랬어요
- 25 가닥들
- 26 바람이 불다
- 27 쌔지공원
- 28 강강이마을 수리조선소의 변천사
- 29 첼로 소리를 만들다
- 30 강강이아지매
- 31 대평동 마을회 현판
- 32 공구들
- 33 그 너머 우리의 풍경

역사문화

- 1 대평포 매축지 기념비
- 2 대동대교맨션
- 3 대평하나빌아파트 자리
- 4 동명기술(주)창고
(구 조질창고)
- 5 옛 영도도선장 자리
- 6 우리조선(주)
- 7 동아조선소
- 8 양다방
- 9 이북동네
- 10 18통 제주골목
- 11 간이선착장
- 12 이까선창(이까뭉디)
- 13 토토볼링장, 태림맨션 일원
- 14 국제선용품유통센터
- 15 대평주차장 목조건물



깡깡이예술마을에 대하여

부산하면 ‘바다’다. 파도처럼 거칠고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들리고
심해까지의 거리만큼 넉넉한 인심이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영도는
부산의 아름다운 섬이다. 영도는 자연 해안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산항을 지나간 수많은 태풍을 온몸으로 묵묵히 막아주었던 곳이다.
세계적인 항만의 역할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력이 넘치는
섬이다.

과거 영도는 목마장(牧馬場)이 있던 곳이자, 개항 이후 군사시설인
절영진(絶影鎭)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근대 개항 후에
영도는 성장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묻어있는 애환의 장소이다.
한국전쟁과 산업화시기에 전국에서 몰려온 피란민과 일거리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 일궈온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도는
다양한 분야 ·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척박한 생활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챙기면서 만들어 낸 특유의 활기가 가득한 섬이다.

영도의 초입에는 ‘깡깡이예술마을’이라 불리는 대평동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산업유산과 해양생활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에서
유래해 깡깡이마을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대평동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항구도시 부산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과 독특한 산업현장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지난 3년간 대평동에서는 깡깡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평동마을회와 전문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사라진 뱃길을 다시 잇는 깡깡이유람선
프로젝트, 벤치와 가로등, 벽화와 썸지공원을 예술가들과 함께 조성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수집하여 출판, 전시하는
마을박물관 프로젝트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깡깡이안내센터, 마을공작소, 생활문화센터와 신기한 선박체험관도
조성되었다. 현재 각 공간들은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방문객들이 마을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최근 근대역사와 산업유산, 해양문화로 마을의 매력이 재발견되면서, 마을
곳곳에는 전에 없던 활력들이 돌아나고 있다. 그렇게 깡깡이예술마을은
새로운 시간들과 건강한 기운들, 그리고 삶과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영도 초입에 위치한 근대수리조선 1번지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



바다를 건넌 사람들

— 갯강이에술마을의 역사와 사람들

근대수리조선 1번지, 영도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로 불리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은 과거에는 바람이 이는 것처럼 기운차게 일어난다는 뜻인 ‘풍발포(風發浦)’로 불리거나, 거센 파도를 만나면 어선들이 풍랑을 피해 머물던 장소라고 ‘대풍포(大風浦)’라 불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 후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길 바라는 뜻에서 풍(風)을 평(平)으로 바꿔 대평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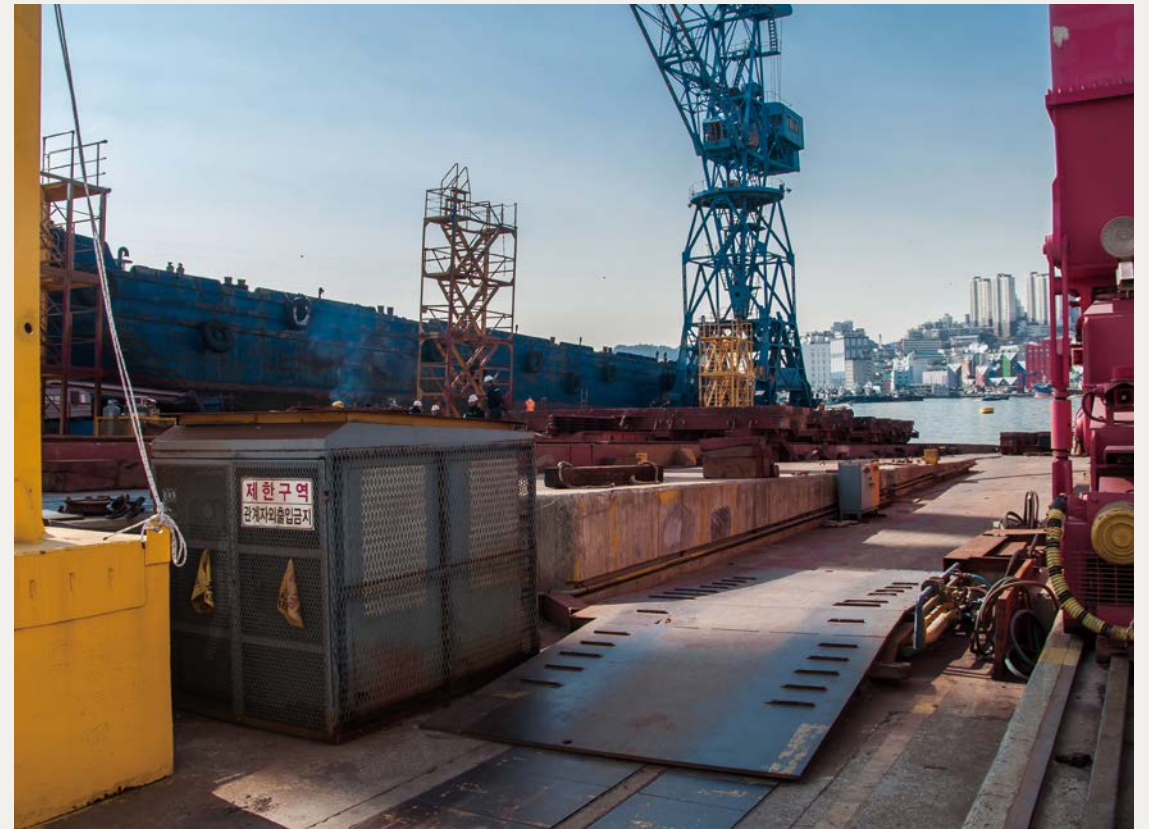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의 어장을 침탈하기 시작한다. 당시 남항은 연근해 어업전진기지로 발전하였는데, 중심에 있던 대평동은 어선을 건조하고, 수리하기 좋은 위치였다. 그래서 1910년대 초 '다나카 키요시(田中清)'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인 '다나카조선철공소'를 현재의 (주)우리조선 자리에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1916년부터 매축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조선소와 관련 선박부품 가게들이 대평동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해방 이후 다나카 조선소를 비롯해 대평동의 조선소들을 불하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1970~1980년대 산업화시기 수리조선업의 메카로 마을을 성장시켰다.

“수리 조선소마다 깡깡 소리가 엄청났지. 여기서 깡깡, 저기서 깡깡. 그만큼 수리 조선소가 잘 됐거든. 거기가 잘되면 다른 데는 어떻겠노? 식당이고 술집이고 할 것 없이 주르륵 도미노처럼 다 잘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 마을 전체가 시끌벅적 했고.”

- 대평동 주민 (깡깡이마을 100년의 울림.호밀밭출판사 中)

“대평동은 정말 대단해요. 수리조선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온 건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수리조선업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주변 환경이 받쳐주질 않거든요. 근데 대평동은 마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70년 넘은 엔진을 교체하려고 해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대평동은 그게 가능한거죠. 똑같이 깡아서든 다른 오래된 배에 있는 걸 빼오든 어떻게든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다른 데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여기는 볼트 하나라도 안 맞으면 다 알아서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 (주)세웅 손준석 이사 (대평동 공업사를 만나다 中)



살아있는 문화유산, 깡깡이 아지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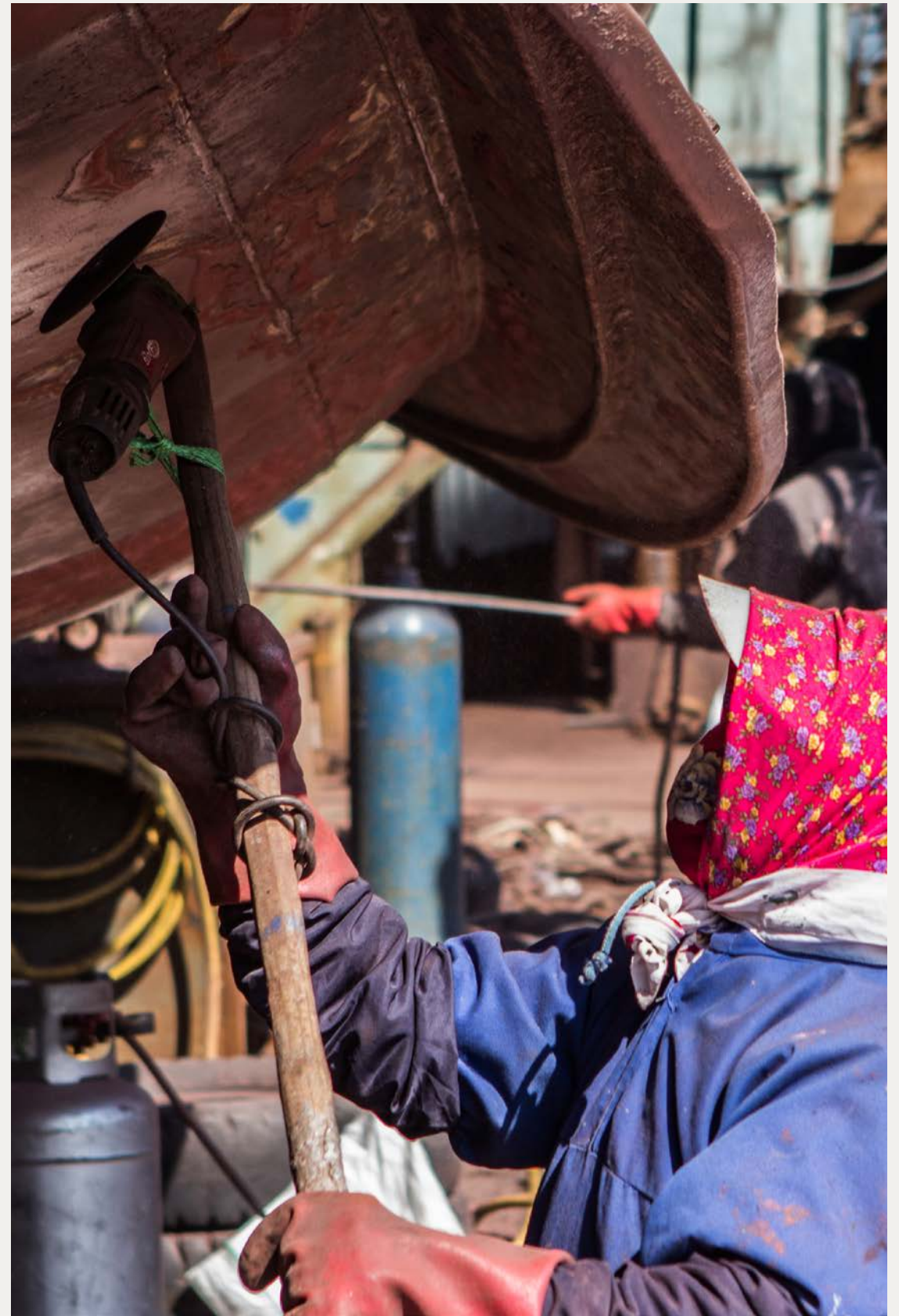
피란민과 부산으로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이 대평동으로 모여 들면서 수리조선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들이 탄생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깡깡이 아지매’이다. 깡깡이는 수리조선소에서 뱃전에 붙은 녹과 해조류를 망치로 떼어내는 작업으로 이때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깡깡’ 거린다고 하여 깡깡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대평동의 별칭 ‘깡깡이마을’도 이 소리에서 유래하였다.

깡깡이는 1960년 후반부터 시작해 1970~80년대 마을이 한창 수리조선으로 번성하던 무렵 가장 많이 이뤄졌다. 마을에 ‘깡깡깡’ 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고 저 멀리 중구 산복도로까지 들렸다고 한다. 깡깡이 일은 상당히 위험하고 고된 일이다. 높은 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작업해야 하는 데다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된 깡깡이에 나선 이들이 바로 대평동의 중년 여성들이었다. 깡깡이 일을 하다보면 낙상(落傷)사고를 당하거나 난청, 이명, 관절염 같은 직업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대평동의 여인들은 가난한 집안 살림에 보태고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 힘든 깡깡이 일을 했다. 그렇게 깡깡이 아지매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수리조선소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였으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조선산업 발전의 주역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깡깡이’는 대평동 마을 주민의 근면함과 끈기를 상징하는 단어이자, 수리조선소 마을인 대평동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보통 배가 한 척 들어오면 한 30명이 붙습니다. 나무판에다 줄을 맨 걸 일본말로 ‘아시바 또는 족장(足場)’이라 해요. 배에 그걸 매달아서 거기 앉거나 서서 깡깡이질을 합니다. 그걸 타고 어렵게 했죠.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갑바(방수복)’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망치들고 깡깡깡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고 나는 게 일상적이었지. 여러 사람 움직이면 아시바가 출렁출렁하거든. 다리에 힘이 탁 풀려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하도 힘을 주니까 일 마치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아시바에 서너 명이 앉아 일을 하니까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면 다 같이 가야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화장실도 못 갔지. 물도 입술만 축일 정도로 마시고, 그래도 나는 다행인 게 몇 번 다치긴 했어도 큰 사고는 없었으니 감사해야지. 귀는 나쁜 아니라 다들 엉망이라. 하도 함마 치는 깡깡 소리를 매일 들으니. 기관지도 안 좋고. 몇 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마스크도 주고 안경도 주고 하더라만 옛날에는 안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먼지 그대로 마시고 뒤집어쓰고 집에 와서 겨우 씻고 안약 넣고 그래 일했지.”

- 40년 경력의 허재혜 어르신 (깡깡예술클럽 가이드북 中)



새로운 변화의 시작

호황을 누리던 대평동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원도심권 쇠퇴, 조선전기 불황 및 부산시청 이전 등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과 함께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로 선박의 대형화와 수리 선박의 감소로 조선소 다수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으며, 매축 이후 100여 년 동안 바다 밑을 손보지 않아 큰 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소형 조선소만 남게 됐다. 지속적으로 지역 주요 공장사업의 축소와 함께 종업원 수가 감소했고 조선 수리업 관련 부품회사와 공장, 철공소도 거듭되는 불황으로 영세업체로 전락했다.

주민들도 약국, 병원, 파출소, 그 흔한 은행 하나 없는 마을이 살기에 너무 불편한 동네라고들 푸념한다.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자 1998년 남항동과 통합되면서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사라졌고 동네의 쇠퇴와 함께 병원과 약국도 떠났다. 생활환경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집 바로 앞에서도 쉴 새 없이 조선소와 공업사의 소음이 들리고 분진이 날리는 곳이다.

“사람이 줄어드니까... 뭐 다 없어지고. 파출소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약국들도 없어져뿌고... 뭐 없어진 게 많지 인자. 그런 게 불편하지. 젊은 세대 다 나가고, 노인네들만 많거든. 그렇게네 약국도 옮겨 안 되고. 전자종점 입구까지 올라가야 약국이 있다. 이 동네? 뭐시 좋은 곳이 있노? 전에는, 충무동 갈라면 배가 있었거든? 그거도 없어졌고.”

— 김화자 어르신

(강강이예술마을, 100년의 울림 1부 역사편. 호밀밭출판사 中)

2000년대 이후에도 바다 건너 맞은 편의 중구 지역이나 영도구의 타 지역들은 원도심 재생이라며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비해 대평동은 아무런 지원이나 관심이 없이 계속 쇠퇴해 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소외감은 커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강강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제안되자 대평동마을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침체된 지역의 변화를 꾀하고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을공동체의 힘, 대평동마을회

사실 대평동은 옛 행정명칭이다. 1990년대 후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루어진 주소지 통합으로, 현재는 영도구 남항동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사람들은 대평동으로 부르며 옛 시절의 영화와 자부심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마을에는 오랜 시간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며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이 많다. ‘대평동마을회’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마을청소, 방역, 음식 나눔 등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근래에 대도시에서 보기 드문 주민공동체인 대평동마을회의 역사는 1950년대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 일제강점기 당시 적산부지 300여 평을 불하 받으면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마을공동재산이 밀바탕이 되어 주차장, 마을시장, 유치원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복지와 대민 봉사를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특히 1990년대는 대평동마을회의 활동과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다. 동민체육대회도 연례행사로 개최하였는데 매년

1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 친목을 다졌다고 한다.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사물놀이패와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마을에 복운이 있길 기원하는 길놀이도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마을활동은 IMF가 불어 닥친 1997년부터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 급기야 행정동 자체가 통합되기에 이르면서 마을공동체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평동마을회는 여전히 직접 방역과 청소 등의 활동들을 하며 마을 환경을 정화하고 독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갯강이에술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마을다방과 투어운영을 직접 실행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6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몇 장의 글로 요약할 수 없는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동안 대평동마을회에서는 끊임없이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 마을 전체에 이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온 선대 개발위원회원 및 마을운영위원분들이 있어 대평동마을회는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며 주민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대소사에 의견을 보태고 함께 봉사를 통해 성원과 헌신 보내준 마을 주민 분들 또한 오늘의 대평동마을회를 있게 한 ‘일등 공신’일 것입니다.”

— 김동진 대평동마을회 감사

(갯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3부 생활편, 호밀밭출판사 中)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 - 수리조선소와 공업사들*

영도 대평동은 해양도시 부산을 있게 한 근대 조선, 해양산업의 중심지이다. 일제강점기 한국 최초의 근대식조선소를 시작으로, 부산 경제의 큰 기둥인 조선 산업을 이끈 곳이며, 전쟁과 산업화 시기 전국 팔도의 사람들을 품었던 곳이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배들이 찾는 수리조선의 메카인 이곳에는 8개의 수리조선소와 함께 260여 개에 달하는 공업사, 선박 부품 업체가 밀집 되어 있다. 특히 공업사는 그 종류도 헤아리기 힘들만큼 다양한데 엔진, 스쿠류, 목형, 철재, 전기공업, 밸브, 벨로우즈 등이 있다. 8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 기구를 취급하는 곳과 약국들, 각 전문 분야 관련 시설과 상점들이 즐비한 하나의 의료 단지를 상상하면 될 것 같다.

대평동의 모든 수리조선소는 배를 육지로 올리는 상가(上架) 작업 후 선체를 깨끗하게 한 뒤 칠을 하고 각 기관이나 부품 등을 수리 후 안전검사를 하여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을 담당한다. 모든 선박들은 일정한 항해 기간이 지나면 선체는 바닷물에 의해 부식되고 배 밑바닥에도 이런저런 이물질이 끼기 마련이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리조선소에 들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배를 만드는 조선업은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배를 수리하는 깡깡이마을의 조선소들이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그 위세나 작업량이 줄어들고 점차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도 대개 그렇지만 과거에는 선박들마다 엔진의 모양도, 사용하는 부품도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면 여간해서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려웠는데, 이러한 부품들을 수리도 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었던 대평동의 기술력으로 인해 “대평동에 가면 고치지 못하는 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안팎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7~80년대 대평동의 선박 수리기술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깡깡이마을은 근대조선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업종 변화 없이 지난 백 년을 고스란히 유지해온 마을이다. 그래서 대평동에서 만나는 기술자분들은 대개가 최소 20년 이상, 보통 30~40년 이상 종사해온 그야말로 장인들의 마을이다.



*더 많은 이야기는 <깡깡이마을 100년의 울림 2부 산업편. 호밀밭출판사>, <대평동 공업사를 만나다>를 참고



“보통 배가 들어올 땐 예인선이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배 위에 있는 사람이 배를 어느 선에다가 맞춰 넣으라고 공을 띄워 주거든. 그걸 보고 대차 위에 올리는 거야. 줄은 총 4개가 필요한데. 뒤에 두 줄은 우리 식구들이 조그마한 통선을 타고 나가서 배 뒤로 묶은 줄을 양 갈래로 잡는 거야. 내가 신호를 해서 뒤에서 줄을 놔 주라면 놔 주고, 감으려면 감고. 예인선은 밀어 주고, 앞에 와이어 두 줄은 내가 직접 조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를 올리지.”

– 영도조선 허창식 도크마스터



“처음에는 공무기사로 시작해서 공무대리, 공무과장을 거쳐 지금은 공무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30년 일했습니다. (공무감독은) 배를 상가하거나 하가하고요. 일정을 협의하고, 수리 사전 견적내고, 필요한 자재 같은 걸 구매합니다. 또 현장의 근로자들 관리-감독하고, 안전관리나 환경 같은 거 총괄하고.”

– (주) JY조선 이윤규 공무감독



“세상살이가요, 밸브가 없으면 안되요. 눈에 안보이지만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건축을 할 때도 모든 곳에 밸브가 다 들어가거든. 밸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이어주고 소통해주는 게 밸브니까.”

– 한국밸브 조영자 대표



“양망기라고, 고깃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풀어놓으면 그물하고 기계 가운데에서 돌아가면서 그물을 올려가지고 끌어 땡기는 게 있거든. 그걸 만들지. 원래 다른 사람이 하던 걸 인수받아서 시작했는데 내가 한 것도 30년이 넘었어. 그때 만든 간판도 그대로고.”

– 신창공업사 추순호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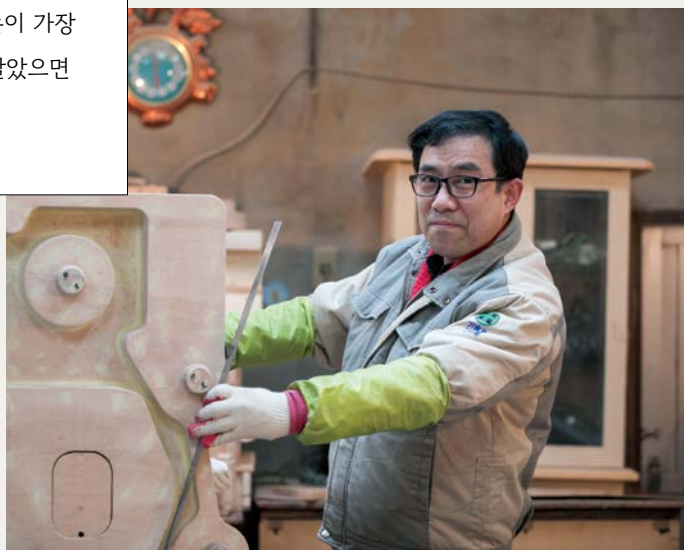
“선박에 필요한 아연판을 생산해서 조선소에 납품하는데... 설계도 하고, 주조도 하고, 한 40년 정도 되었어요. 선체가 바닷물에 부식되는 걸 아연판이 방지해주거든. 페인트처럼 선박이 노후되는 걸 보호해 주는 거지.”

– 남양아연 김동길 사장



“대평동에 있는 기술자 대부분이 육십대, 좀 젊으면 오십대거든요. 이삼십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면 좋은데 그게 제일 안타깝죠. 사실 기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이한 사람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기술자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일들, 사람 손이 가장 소중한 일들이 있다는 걸 젊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 진영목형 황갑성 직장



기억과 소통의 공간, 깡깡이예술마을

—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소개

기억과 소통의 공간, 강강이에술마을

강강이에술마을은 ‘오래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시도이다. ‘오래된 것’은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전통과 문화에 연관된 것이다. 개항과 더불어 최초의 근대적 조선포항 설립되어 지금도 크고 작은 수리조선소와 공업사들이 자리한 대평동은 개항과 근대화 시대를 거치며 부산이 우리나라 최대 항구도시로 성장하는 역사의 굴곡과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다. 오페라하우스와 화려한 상업시설,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인근 북항지구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꿈꾸고 있지만 대규모 철거와 급격한 재개발방식은 공간이 가진 역사성과 장소성을 파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 공동체의 연속성을 허물어뜨린다. 강강이란 마을의 별칭이 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재생의 망치질 소리에서 유래했듯이 강강이에술마을은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이승욱
강강이에술마을 예술감독,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상임이사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2015년 부산시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출발한 강강이에술마을은 지난 2년여 동안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마을 곳곳에 필요한 독특한 공공 시설물을 제작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구름 모양의 가로등을 곳곳에 설치했고 선창가에는 그물 모양을 형상화한 유려한 외관의 LED 가로등을 세웠다. 버스정류장이나 골목길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벤치 작품을 설치했는데 마을에 버려진 자개농과 닳을 직접 활용하거나 익숙한 마을의 정경을 새겨 놓았다. 공장의 외벽에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닮은 선박의 외관을 그리거나 강강이마을의 친숙한 풍경과 색채를 담은 페인팅 작업을 진행했다. 선창가 축대에는 바람이나 조수간만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키네틱아트 작품을 설치했는데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뿐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추락 경고판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예술작품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작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들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직접 이끌어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도 동시에 진행했다. 시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쓰고 그린 시화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시집을 발간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춤 동아리는 6명의 할머니들이 참여하여 직접 자신의 이야기와 몸짓을 담은 춤 공연을 마을축제를 통해 선보였다. 마을 기자와 해설사를 양성하는 동아리를 운영하여 매월 마을신문을 발간하고 외부 방문객들에게 주민들이 직접 해설하면서 마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정원사 동아리 참가자들은 예술가와 함께 공터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골목길 곳곳에 화초를 심고 가꾸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다방 동아리에 참가한 2명의 주민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 조성된 마을다방과 공동체부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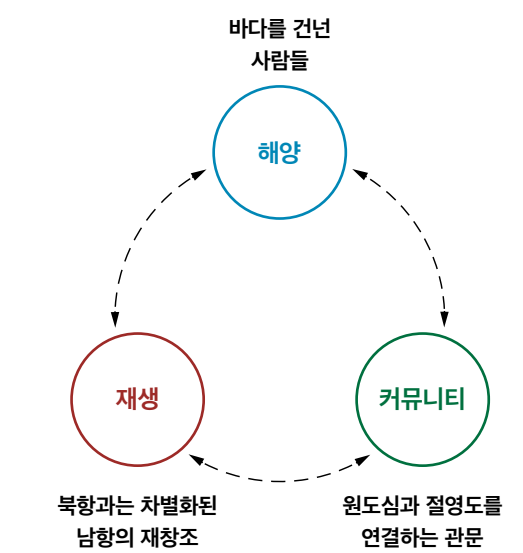
강강이에술마을은 지역의 역사와 삶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각각 강강이마을의 역사, 산업, 생활을 다룬 세 권의 책자와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발간했고, 수리조선 작업의 전체 공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했다. 부산 출신의 유명 대중가수와 인디밴드가 강강이마을을 소재로 작곡한 노래 두 곡과 부산과 영국의 만화가가 그린 웹툰과 그래픽노블도 발간했다. 강강이마을 곳곳의 소리를 채록한 사운드스케이프, 소리지도를 제작했고 강강이마을의 일상을 다양한 소리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술작품들도 설치됐다. 이 모든

기록과 콘텐츠는 출판물과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고 있고 새로 조성된 공간들에서 소개되고 있다.

강강이에술마을은 영도도선의 복원을 유람선의 형태로 추진하였다. 영도도선은 1890년대부터 영도와 도심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영도다리가 설치된 이후에도 2008년 운항을 중단할 때까지 쉼 없이 영도 대평동과 자갈치를 오가며 수많은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예전 선착장이 자리한 곳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터미널 겸 안내센터를 짓고 예술가의 작업으로 독특한 외관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남항 일대를 둘러보는 유람선 운항을 2019년 5월부터 시작하였다. 강강이유람선은 영도대교부터 자갈치와 강강이에술마을 일대를 둘러보며 항구도시 부산의 독특한 정취를 체험할 수 있는 해상투어이다.

강강이에술마을은 문화예술을 통해 이 지역의 역사와 삶을 기록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문화예술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단순히 장식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소통이라는 문화예술이 지닌 본원적 힘과 가치일 것이다. 강강이에술마을 입구 아파트 외벽에 ‘강강이 아지매’의 얼굴을 표상하는 대형 인물화를 그린 작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는 콘크리트 벽체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개축하기 위해 오래된 나무 두 그루를 베어내던 날 일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던 할머니는 그 아쉬움을 시 한 편에 담았다. 주민들이 함께 고사를 지내고 베어낸 이 나무는 조각가의 손을 거쳐 나무벤치로 만들어져 다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강강이에술마을의 시간과 역사는 앞으로도 오래 동안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강강이에술마을 조성사업 비전과 목표



비전
해양, 재생, 커뮤니티 중심의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 재창조

성과목표
해양문화의 재조명,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예술상상마을 구현

사업 개요와 방향



사업명칭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조성 사업

사업기간

2016년 5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총 2년 4개월)

사업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1가·2가

(*행정동: 남항동, 인구수: 1,176세대 2,771명 /2016년 사업 착수 당시 기준)

사업주최, 주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마을회, 영도문화원,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사업예산

35억(시비)

연계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2.5억, 2016)
-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10억, 2017)
- 다복동 안심마을 사업(부산광역시, 1.5억, 2017)
- 부산 강강이마을, 웨필드 인터시티 아트프로젝트(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억, 2018)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문화체육관광부, 1.6억, 2018)

바다를 건넌 사람들

산복도로 재생에 이어 해양문화수도, 부산의 원형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대안 제시

북항과는 차별화된 남항의 재창조

기존의 개발형 북항 모델과 달리 근대문화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풀어내는 부산 원도심의 재창조

원도심과 절영도를 연결하는 관문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교감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형성을 통해 부산의 원도심과 영도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의 재창조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은 부산 영도의 관문지역인 대평동 일대의 풍부한 해양 생활문화와 근대산업유산을 바탕으로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 재생을 비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해양문화수도라는 부산의 특색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였다.

감천문화마을이 산을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강강이예술마을은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다.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을 중심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원형을 문화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하여, 역사적 장소들을 활용한 거점공간 조성, 강강이유람선 등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항구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북항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면서 역사성과 장소성들이 상당부분 상실되었으나, 남항의 중심지역인 영도 대평동은 항구도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마을이 지닌 역사자원과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적 해석을 통하여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가치 상승 및 활성화의 도약 기반 마련을 시도하였다.

공공기관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예술가와 시민의 구분을 넘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였다.

해양	재생	
기본방향 “바다를 건넌 사람들” 산복도로 재생에 이어 해양문화수도, 부산의 원형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대안 제시	기본방향 “북항과는 차별화된 남항의 재창조” 기존의 개발형 북항 모델과 달리 근대문화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불어넣는 부산 원도심의 재창조	
핵심사업과 과제 강강이유람선(영도도선복원) 프로젝트 끊어진 뱃길, 영도도선을 유람선 형태로 복원하고 복합안내센터와 휴게쉼터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항구도시 부산의 근현대사를 되살리고 지역의 특화된 관광상품으로써 마을 공동체 자립과 지속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핵심사업과 과제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도시에 장식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예술작품이 아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소리, 빛, 색채 등 다양한 매체와 요소를 활용한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업.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녹지 및 정원, 가로등을 비롯한 생활안전시설, 벤치와 쉼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독특한 마을경관을 조성	핵심사업과 과제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근대문화유산과 생활문화를 수집, 기록하고 이를 단행본 출판, 음원,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 확산함. 또한 거리박물관, 마을박물관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 되는 필드뮤지엄으로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프로젝트
세부추진내용 - 강강이유람선 - 강강이안내센터 - 플로팅가든 [2017-2018 강강이수리조선 산업관광 활성화사업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세부추진내용 - 상징물 조성 - 아트벤치 - 골목정원 프로젝트 - 사운드 프로젝트 - 라이트 프로젝트 - 키네틱 프로젝트 - 페인팅시티	세부추진내용 - 생활문화조사아카이빙 - 강강이 오버씨 프로젝트 - 마을박물관 조성

커뮤니티		
기본방향 “원도심과 절영도를 연결하는 관문”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교감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부산의 원도심과 영도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의 재창조		
핵심사업과 과제 문화사랑방 주민, 예술가,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만나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강강이예술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강화. 또한 지역주민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써 마을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지역공동체의 거점공간이자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핵심사업과 과제 공공예술페스티벌 사업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공공예술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의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예술적 흥미를 이끌어냄	핵심사업과 과제 강강이크리에이티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통합적인 이미지 개발과 기념품, 콘텐츠 등을 제작, 배포. 이와 함께 마을신문 발간을 통하여 널리 마을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
세부추진내용 - 문화사랑방 - 마을커뮤니티공간 (생활문화센터)조성 [2018-2019 문화적도시재생 사업 연계(문화체육관광부)]	세부추진내용 - 시각예술 - 공연	세부추진내용 - 마을브랜딩 BI, 기념품 - 마을신문<만사대평>

사업단 운영	기본방향	세부추진내용
	문화예술의 매개자로서 주민 커뮤니티와의 교류와 소통, 예술가와 전문가·행정의 유기적인 협업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의 총괄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및 총괄 사업단 사무국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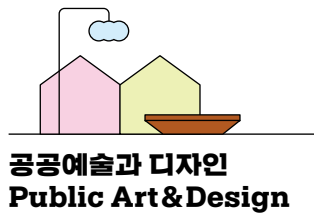
사업성과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마을박물관, 마을다방 포함)
- 복합안내센터
- 선박체험관
- 마을공작소



기억의 장소들을
문화적으로
재생, 활성화



- 페인팅시티
- 아트벤치
- 사운드 프로젝트
- 라이트 프로젝트
- 키네틱 프로젝트
- 골목정원프로젝트(쌈지공원)
- 상징물 조성



도시의 공간에
필요한 공공편의
시설, 환경을
예술가들과 개선



- 갯강마을 100년의 울림 역사, 산업, 생활 편 단행본
- 음원 제작
- 카툰 제작
- 주민 자서전 단행본
- 공업사 기록물 단행본
- 조선소, 공업사 영상아카이빙
- 투어 등 문화관광 콘텐츠



도시를 읽고,
기록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문화 콘텐츠



- 문화사랑방, 예술가의 밥상
- 시화, 자서전 동아리
- 댄스, 민요 동아리
- 마을해설사 동아리
- 마을신문동아리
- 마을목수동아리
- 마을다방동아리
- 물양장살롱
- 공공예술페스티벌



시민과 예술가의
구분을 넘어 참여,
소통하는 프로그램

사업성과 — 문화 거점공간 조성

갯강이예술마을 사업을 통하여 마을다방, 마을박물관, 안내센터와 선착장, 선박체험관과 마을공작소 등을 조성하였다. 각 공간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연결하고, 방문객과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기억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마을주민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갯강이생활문화센터 (마을다방, 마을박물관)



갯강이안내센터 (갯강이유람선, 선박체험관)



갯강이마을공작소



사업성과 — 공공예술과 디자인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의 공공예술은 도시에 장식적으로 설치하는 예술작품이 아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예술로 추진되었다. 장소를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이해하여 그 장소의 역사와 전통에 주목하고 새로운 장소의 가치를 담아내고 표현하는 다양한 계기와 방식의 시도로써 소리, 빛, 색채 등 다양한 매체와 요소를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재생에 필수적인 녹지 및 정원, 가로등을 비롯한 생활안전시설, 벤치와 쉼터를 포함한 주민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업으로 추진하였다. 총 28명의 작가(단체, 해외 포함)와 80여점의 작품으로 독특한 마을경관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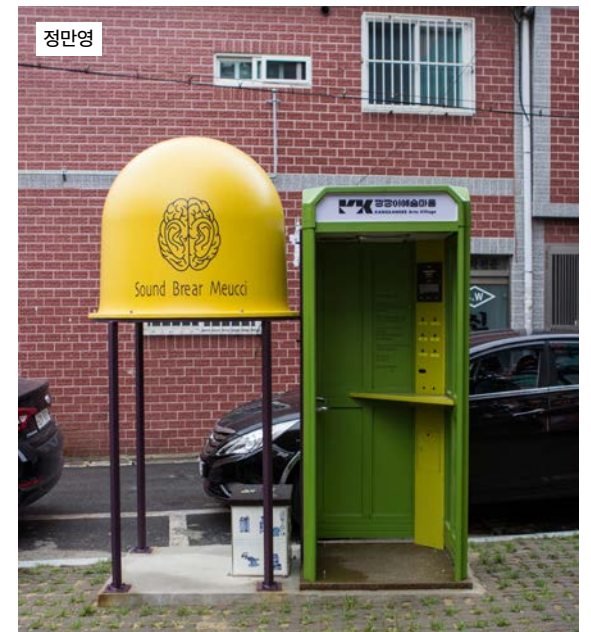
페인팅시티



골목정원프로젝트, 삼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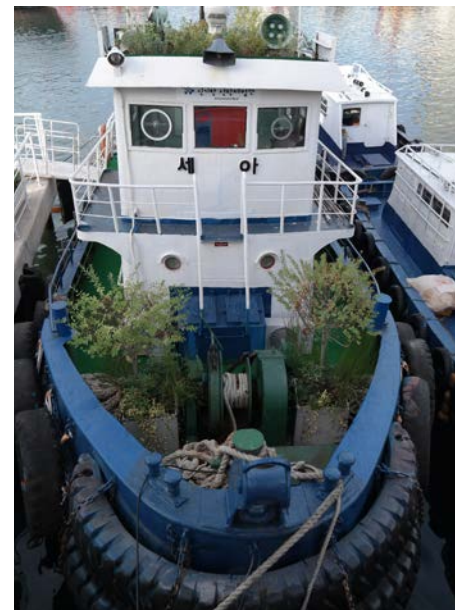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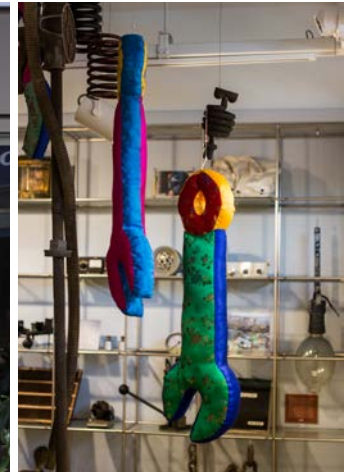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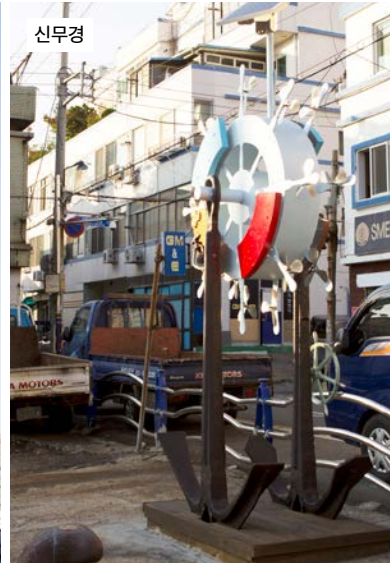


아트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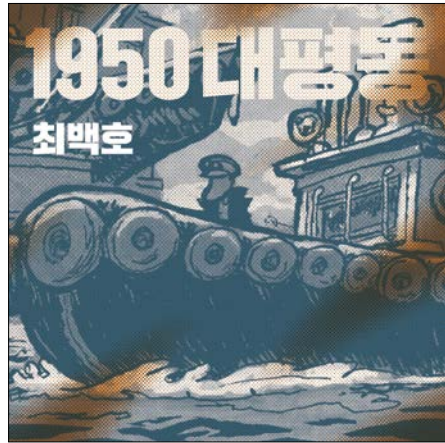
사운드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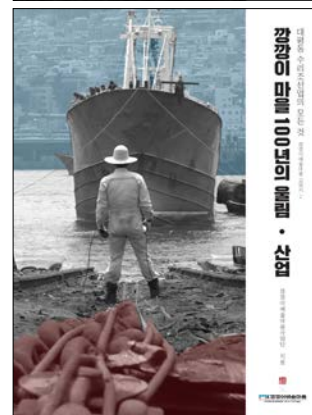


사업성과 — 도시의 기록과 재현

마을박물관 프로젝트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은 강강이에술마을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여, 대중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근대문화유산과 생활문화를 수집·기록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영상과 실물자료로 전시하였다. 나아가 원천 자료를 예술가들이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만화, 음원,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발하였다. 특히 마을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의 제작, 판매와 다채로운 투어 및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여 마을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최백호
스카웨이커스
음원제작



단행본 제작

사업성과 — 참여와 소통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생활세계의 건강한 소통관계를 복원하는 시도였다. 보다 좋은 삶을 고민하고, 건강한 커뮤니티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 예술가들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쇠락한 마을이 아닌 근대역사의 주역으로써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강강이에술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다.

강강이생활문화센터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주민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2016

- 마을의 고유한 역사문화, 산업유산, 정체성의 발굴
-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으로써 마을에 대한 재조명
 - 마을의 특징을 부각하는 BI/슬로건/캐릭터 등의 제작,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운영
 - 대중서로서 단행본 발간, 마을신문 발행, 영상기록 진행
 - 거리박물관 등 마을의 역사, 산업에 대한 다양한 예술적 접근과 디자인
-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 소통과 참여의 지속적 확장
- 신뢰의 구축을 통한 사업의 토대 마련
 - 사업단을 중심으로 주민-예술가, 기관 등의 협업구조 마련 및 주민공감대 지속적 형성
 - 정원사, 시화, 댄스, 신문, 마을다방 등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등 주민 커뮤니티 형성

2017

- 지역 주민, 조선소, 공업사 및 시민 관심 환기
- 물양장, 골목 등 생활공간 중심의 예술 활동
 - 강강이유람선(마을투어), 퍼블릭아트, 영상, 음원 등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에 기반한 대중적인 콘텐츠 개발과 배포
 - 벤치, 조명, 사운드 등 마을의 특징을 반영하고, 생활환경개선과 편의 증진을 중심으로 둔 다양한 형태의 공공예술 작품 조성

2018

- 건축, 도시, 인문, 디자인, 출판 등 다양한 전문가 결합
- 전문가(예술가)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
 - 마을해설사, 마을다방 운영 동아리 등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주도의 사업 기반 마련
 - 물양장살롱, 공공예술축제 등 다양한 마을축제를 통한 주민-예술가의 교류와 소통
 - 조선소, 공업사와 연계한 물품 기증, 작품 제작 등 건강한 커뮤니티의 지속적 형성

2018

현재

강강이안내센터

강강이유람선
선박체험관



지역 정체성의 문화적 복원

- 옛 영도도선 등 기억의 장소들을 문화적으로 재생
- 주민이 직접 해설하는 마을투어로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 항구도시의 생활과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마을공동체와 공공기관 등 민간협업을 통한 강강이유람선 및 안내센터 운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을 위한 모델 정립

강강이생활문화센터

마을다방
마을박물관



건강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회복

-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소통의 활성화
- 일상과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예술가와 향유자라는 경계와 구분을 허물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계기의 마련
- 주민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마을다방, 공동체부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공공성의 확대

강강이마을공작소



도시의 기록과 재현

- 옛 공업사 건물을 교류와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 도시의 기억을 창의적으로 해석
- 기술자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조립체험 등으로 마을을 읽고, 성찰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운영
-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넘어, 콘텐츠와 사람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중심의 생태계 형성 구축

역사와 예술과 사람이 있는 여행

— 깡깡이에술마을 투어 및 콘텐츠 안내

강강이예술마을 투어 안내

강강이예술마을 투어는 매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마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근대산업유산과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수리조선소와 공업사의 풍경들, 마을 곳곳에 어우러져 있는 예술작품들을 마을해설사와 함께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출발시간	소요시간	요금(1인)	비고
강강이 해상투어(강강이유람선)	주말(토·일) 13:00, 14:00, 15:00	20분	6,000원	만 6세미만 탑승불가
강강이 마을투어	사전예약	40분	6,000원	해설 + 음료제공
패키지 투어(해상투어+마을투어)	사전예약	1시간 10분	10,000원	해설 + 음료제공

패키지투어 코스(예시)

마을박물관 → 마을다방 → 선박체험관

→ 강강이유람선 → 옛 다나카조선소 자리 → 마을공작소



남항, 자갈치 시장 일대를 포함하여 영도 대평동의 수리조선산업 시설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경관을 선상에서 관람하는 해양체험형 투어입니다.

- 평일해상투어는 단체예약시 진행합니다.
-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안내센터에 도착하여 승선준비를 해야합니다.
- 해상투어 시 안내센터에서 승선신고서를 작성해야 매표가 가능합니다
- * 신분증 필참, 소인의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만 6세 이상, 110cm이상부터 보호자동반이면 탑승 가능합니다
- 운항시간은 현지사정 및 기상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을투어



마을박물관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마을다방



뱃머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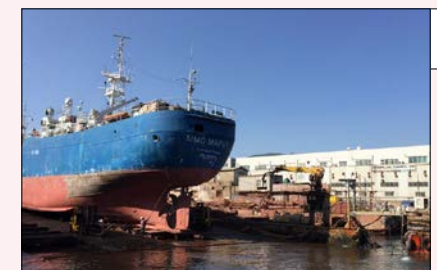
선박체험관



동명철공
창고벽화



강강이
안내센터



옛 다나카조선소
자리



마을공작소



키네틱아트

강강이예술마을 거점공간

강강이 안내센터

방문객들이 마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센터이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강강이유람선과 마을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주말 10:00 - 17:00
월요일 휴관



신기한 선박체험관

선박체험관은 강강이마을의 물양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인선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가들의 상상이 더해진 입체적인 선박체험공간입니다.



운영시간

평일, 주말 10:00 - 17:00
월요일 휴관
무료체험



강강이 마을공작소

강강이예술마을의 메이커스 프로그램, 목수 동아리의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제작키트 조립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주말 11:00 - 17:00

유료체험(키트조립)

소형키트: 5,000원
시계키트: 10,000원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1층은 대평동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평마을다방과 공동체부엌으로 음료, 디저트,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60명 정도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강연이나 공연 등 다목적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관 가능)



운영시간

평일, 주말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강강이예술마을의 다양한 콘텐츠

강강이예술마을 교양서 시리즈 3부작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역사/산업/생활>

3부작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강강이마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출판한 대중서입니다.



강강이예술마을 가이드북

역사와 산업, 생활과 예술까지, 근대수리조선 1번지 영도 대평동의 탐구생활 완결판으로 마을 곳곳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입니다.



강강이예술마을 사업단 발간서적

대평동 어르신들의 자서전 <부끄러워서 할말도 없는데>와 대평동 공업사들을 기록한 <대평동 공업사를 만나다>는 마을의 삶과 역사를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신간 서적입니다.



오버씨 프로젝트

여러 아티스트들이 장르를 넘어 협업한 프로젝트로 음악과 만화, 영상 장르가 결합해 나름의 방식으로 강강이마을을 재해석한 대중적인 콘텐츠 작품입니다.

음원 2종

- 1950대평동(최백호)
- 강강30세/Skanking On My Way(스카웨이커스)

만화(그래픽노블) 2종

- 강강시티(배민기)
- 강강이블루스(Mark Stafford, 영국)



강강이예술마을 영상아카이빙 작품

앞으로 사라지게 될 아날로그 기술인 선박 수리기술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 수리조선의 전 과정은 물론 부품별 공업사의 작업 공정과 기술자들의 생애를 육성으로 남긴 영상 기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 및 마을박물관에서 상영 중)
조선소(1개소 2종) 및 공업사(9개소)

마을신문 - 만사대평

마을의 소식과 함께 수리조선업, 공업사, 마을 사람들을 소개하는 마을 신문을 총 25호 발행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마을브랜드, 기념품 제작

마을브랜드와 다양한 기념품 등을 제작했습니다.
(강강이안내센터, 마을다방에서 판매 중)

BI제작 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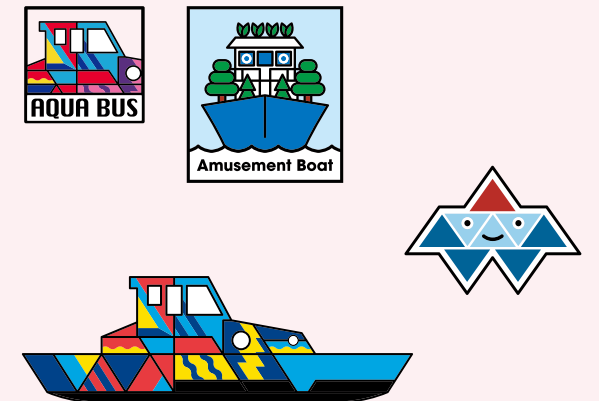
- 강강이예술마을 BI 및 캐릭터제작

홈페이지 1종

- 마을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영문홈페이지 포함)

기념품 10종

- 에코백, 컵, 수건, 손수건, 마그넷, 열쇠고리, 화분, 배지, 스티커, 패치





강강이예술마을 사업단 사무실

4904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2층 생활문화센터
T. 051-418-1863
F. 051-418-1864
ydart2016@daum.net
www.kangkangee.com

강강이 안내센터

49043 부산시 영도구 대평북로 36
T. 051-418-3336

오시는 방법

지하철

남포역 6번 출구에서 나온 후
영도대교 건너 도보로 15분

버스

6번 - 영도전화국 하차 후 도보 7분
7, 9, 71, 508번 - 남항동 정류장하차 후 도보 7분

이용 가능한 유료주차장

대평주차장(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30-1)
* 주차장이 부족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투어 시 주의사항

강강이마을은 산업현장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보행해 주시고, 조선소나 작업장 내부 사진 촬영은 가급적 삼가 주세요.
조선소와 공업사의 작업과정은 강강이 마을박물관에서 영상기록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강강이 성과보고서

크레딧

사업추진 및 실행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대평동 마을회,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사업단장 김두진, 예술감독 이승욱,
전시감독 김성연, 설치감독 정만영, 예술국장 이여주, 사무국장
송교성, 재정지원 이혜미, 홍보지원 하은지, 운영지원 김선영,
운영지원 이대한, 프로그램 매니저 김설, 프로그램 매니저 김슬기
생활문화조사보고서 및 마스터플랜수립: 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및 류성호, 배미래, 장현정, 정재훈, 최민혜, 최예송
영도구: 문화관광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추진단,
남항동주민센터
영도문화원: 성일주, 성한경, 천기호
대평동마을회: 강장수, 김동진, 김상겸, 김영곤, 김재규, 남삼남,
박기영, 박영오, 신을임, 이영완, 이정애, 이종렬, 이춘옥, 이치윤,
전동수, 정금자, 하정태
영국문화원(한영교류사업): 예술감독 최석규, 매니저 김윤정,
신예지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정민정, 조미성
자문: 강동진, 강영조, 김민수, 김승, 김정하, 김태만, 김한근,
김형균, 도현학, 박진명, 서종우, 심윤정, 이경춘, 정덕용,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 홍순연, 황보승희
회계검사: 이춘회계법인

거점공간 조성 (3개 거점공간)

강강이생활문화센터 및 마을박물관 : 김경화, 공간디자인 마루,
공간 힘, 다솜건축사사무소, 박경석, 윤필남
강강이안내센터(유람선) : 박재현, 비스페이스, 싸이트플래닝
강강이마을공작소 : 안재석, 싸이트플래닝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마을축제

문화사랑방 강의: 김대율, 김두진, 김정주, 김혜정,
대구근대골목-시간과 공간 연구소, 박성옥, 박진명, 故 이집윤,
장현정
마을해설사: 진행 (주)핑크로더 / 강장수, 김동진, 김성호, 김혜경,
박경화, 박분란, 박영오, 신을임, 이영옥, 장순옥
마을신문: 진행 스토리머지, 복성경, 정수진, 손판암 / 김동진,
이은미, 이종렬, 이춘옥
댄스동아리: 진행 무브먼트 당당, Etienne de la
Sayette(프랑스), 임지윤, 허경미, 촬영 김지곤, 손호목, 오민욱,
유병준, 최영민 / 김부연, 서만선, 위우임, 유호희, 탁애자, 하청자
마을정원사: 진행 가치예술협동조합 / 곽순희, 김진주, 박기영,

박승주, 서만선, 우경숙, 이정애, 전동수, 정금자, 한덕출
시화동아리: 진행 이민아 전영주 / 김길자, 김부연, 김순연,
박송엽, 서만선, 한덕출
마을다방 동아리: 진행 도모, 이지은, 조수지, 조세빈 / 김두을,
박기영, 이동순, 이종렬, 정금자
마을목수 동아리: 진행 정시원, 쌤우드스튜디오 / 공선미,
서만선, 이춘옥
자서전 동아리: 진행 정우련 / 김길자, 김부연, 김순연, 박송엽,
서만선, 조창래
민요동아리: 진행 서영화 / 박소영, 서만선, 이남선, 탁애자,
하청자, 한미순
마을사진전: 진행 뿌리아킴 / 강장수, 김동진, 박기영, 박소영,
박송엽, 박영오, 박운하, 이영완, 조막점, 한귀선, 한미순, 허재혜
물양장살롱: 김대율, 도모, 말란드로, 벽사유희, 수영지신밟기
보존회, 아이씨밴드, 윤규택, 재미난복수, 쟁반땅콩, (주)선경마린,
초콜릿벤처, 최백호, 핑크로더
문화사랑방 및 물양장살롱 협력: 김근태, 김두애, 김미라, 김창연,
문재성, 박재한, 송종민, 오상영, 우동준, 이옥진, 이지은, 정승민,
조대현, 최희웅, 하민지
예술가의 밥상: 곡두, 김태희, 서영화 및 민요동아리, 신무경,
오카리나 앙상블, 장현정, 정시원, 정우련 및 자서전동아리,
정찬호, (주)남산놀이마당, 진영목형, 하나정밀, 한정기, 해피피플
공공예술페스티벌: 구현주, 권민기, 김건우, 김경화, 김광태,
김범수, 김지곤, 노수진, 댄스동아리, 마을다방 동아리, 마을신문
동아리, 마을정원사 동아리, 마을해설사 동아리, 무브먼트 당당,
문호성, 박병근, 박진명, 배민기, 사이트갤러리, 스카웨이커스,
시화동아리, 씨네소파 협동조합, 어반피크닉, 윤필남, 이민아,
이세운, 임형욱, 전광표, 전순남, 정만영, 정민정, 정소희, 조선소
근로자 색소폰 동아리, 조세빈, 조수지, 조영자, (주)핑크로더,
최경섭, 하기천, 허수빈, 허재혜, 허창식, 현수, 황형근, Ben Tew,
DJ건봉, Mark Stafford, Paul Morrison

강강이유람선(영도도선복원) 및 산업관광

강강이유람선: (주)선경마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석재,
김원욱)
강강이유람선 출항식: 도모, (사)동해안별신굿 보존회
선박아트: Rukkit Kuanhawate(태국)
신기한 선박체험관: 금오 ENG, 김덕희, 김태희, 도모, 신무경,
서민정, 우동준, 정만영, 조미성, (주)들과숲 원예점, Chen Sai
Hua Kuan(싱가폴), Nao Nishihara(일본)
산업관광 투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디자인 마루, 그린그림,

김선화, 박인진, 박주현, 송기철, 스토리머지, 정만영,
(주)핑크로더, 진홍스튜디오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강강이오버씨프로젝트: 박은주, 배민기, 백수진, 스카웨이커스,
최백호, Mark Stafford(영국)
영상 아카이브: 진행 평상필름 / 경진스크류, 광신벨로우즈,
대호엔지니어링, 부산아연, 부영기계, 성주철재, 영도조선,
예광전기공업사, 진영목형, 한국벨브
거리박물관프로젝트: 김성계, 심점환, 우징
강강이에술마을 단행본 1권: 김한근, 문호성, 서호빈, 정우련,
호밀밭출판사, 홍주남
강강이에술마을 단행본 2권: 우동준, 이세운, 최효선, 추주희,
평상필름, 현수, 호밀밭출판사, 홍주남
강강이에술마을 단행본 3권: 강영조, 김필남, 방호정, 오동건,
전재현, 최예지, 최효선, 추주희, 호밀밭출판사
가이드북: 우동준, 이정임
마을박물관프로젝트 협력: 강성현, 강수호, 강승훈, 구희상,
김경범, 박병근, 박영, 박영신, 박은생, 박은주, 방호정, 손모아,
손호목, 신봉현, 신현권, 오민욱, 유재철, 윤병준, 용스트링,
故 이상치, 이성렬, 이윤규, 임성학, 임종광, 장현정, 전순남,
정남준, 조영자, 최경섭, 최영민, 최유도, 하영석, 허창식, 데니스
유리에비치 자도로즈니(러시아), 블라디미르 아나톨리에비치
오노프리옌코(러시아), 유리 빅토르비치 드미트리예프(러시아)
마을박물관 물품기증: 강영준, 구민석, 권소부, 김광태, 김선일,
김영곤, 김정현, 김창수, 김태영, 남경울, 류환수, 박대수, 박명준,
박정안, 박창세, 박현정, 백영신, 손철수, 안주봉, 양광수, 양희석,
이명동, 이문환, 이복순, 이수현, 이종석, 故 이집윤, 이효일,
임형욱, 장원진, 장재진, 전재남, 정대섭, 정주화, 조성휘, 추복만,
하병기, 한길호, 황갑성, 황점성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총 88점/개소)

페인팅시티: 정크하우스-수리가 있는 강강이마을 1점,
컬러풀 스트리트 6점, 신혜미-영도 사람들 1점, Zéh Palito
(브라질)-경외로운 자연 5점, Sayoko Hirano(일본)-바로
그곳에 1점, 구현주&Zéh Palito(브라질)-풍경 1점, Hendrik
beikirch(독일)-우리 모두의 어머니 1점, Paul Morrison(영국)-
씻기기 1점, 구현주-항구의 표정들 3점, 프로펠러 1점, 배민기-
강강시티 18점
상징조형물: 공간디자인 마루-강강이에술마을 상징조형물 1점
거리박물관: 심점환 -강강이마을 수리조선소 변천사 7점,

우징-철로 소리를 만들다 3점

아트벤치: 김상일-두드림 1점, 김성철-관계.어울림 1점,

조형섭-시간에 '맞'다 1점, 신명덕-나무벤치 5점, 박상호-

강강이마을 4점

골목정원: 백성준-쌈지공원 1개소, 가치예술 협동조합-

거리정원 2개소

라이트프로젝트: 이광기-그때 왜 그랬어요 1점, Ben Tew(영국)-

가닥들 2점, 박재현-바다, 새로운 소통 1점, 허수빈-파란 구름

12점

키네틱프로젝트: 김태희-바람과 시간 1점, 신무경-대평의 미래

1점, 박기진-발견 1점

사운드프로젝트: 전광표-강강이마을 소리지도 1점, Nao

Nishihara(일본)-환풍기 소리장치 1점, 정만영-소리전화부스

1점, Chen Sai Hua Kuan(싱가폴)-써라운드 사운드 스피커 1점

퍼블릭아트프로젝트 협력: 고혁빈. 권병구, 그랜드160, 김권진,

김덕희, 김보민, 김부국, 김승영. 김용수, 김윤제, 김윤희, 김정민,

김진규, 김찬환, 김태형, 김하림, 김형철, 대일금속, 도호선,

럭키레이저, 레드볼, 류성호, 문진욱, 바버샵 커피, 박경석,

박은주, 박재한, 배기덕, 배성미, 백수진, 삼정기업, 송기철,

신창우, 오상영, 이육진, 이지현, 이찬우, 이창환, 임성민, 임종광,

장인수, 전재현, 전창훈, 정윤주, 정혁재, 조권익, 조동국,

통영고물상, 하나정밀, 한국전력 영도지사, 한진영, 허성우,

허찬우, 홍문기

메이커스 프로젝트

진행 스튜디오이인, 은여우, 정찬호, 조미성 / 남양아연,

도원전기, 신창공업사, 제이제이노즐사, ㈜세웅, 진영목형,

하나정밀, 한국밸브, 한성썰리데나, 한일프로펠라,

해주항해계기사

강강이 크리에이티브

BI, 캐릭터, 홈페이지, 지도, 기념품 등: 그린그림 디자인

스튜디오, 올드뉴스, 열린문화공동체 딱, 이동이, 프롬샵

마을신문: 스토리머지

사진, 영상: 김기석. 김태정, 고삐풀린영화사, 미디어팩토리몽,

미디어토리협동조합, 진흥스튜디오

학술행사

영도문화도시 콜로키움 (2019.1.): 강동진, 권순석, 박은진,

손경년, 송교성, 이승욱, 이여주, 정영민, 창파, 하은지, 홍순연

2019 강강이예술마을 포럼 (2019.4.): 김준기, 김철우, 류성호,

류효봉, 박명호, 성현무, 송교성, 신동호, 신병윤, 윤현석, 이승욱,

이여주, 정승민, 최성우, 홍순연

수상실적

-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2018 영국 대외통상부 주관 혁신대상(Innovation is

Great) PLAY 부문 수상 Busan Sheffield Intercity Arts

Project (주최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사이트갤러리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예술위원회, 부산시 / 협력:

영국문화원, 영도구, 영도문화원, 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

- 2018 부산도시재생박람회-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최우수상

(주최: 부산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 2017 마을미디어 축제 마을미디어 활동사례 우수상 (주관:

방송통신위원회 /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후원: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 2017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주최: 경찰청, 중앙일보)

언론보도

2016년 10월 ~ 2019년 3월 기준

220회 언론보도 주요 언론보도

- 들어보세요, 강강이마을 어르신들 인생이야기

국제신문 2019.03.04

-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3 - 9회 부산 1

tvN 2018.11.16

- (다큐3일) 세월을 두드리다 - 부산 영도 강강이마을 72시간

KBS 2018.04.23

- 문화예술형 도시로 거듭난 부산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한국경제 2018.03.27

- 부산 '강강이마을'을 아시나요? 한겨레 2018.01.08

- '조선소의 변신'...청년 예술가들이 만든 문화마을

SBS 2017.11.27

- 제2감천 꿈꾸는 '영도 강강이마을' KNN 2017.07.15

- 근대 부산을 만든 '속살'과 '굳은살' 부산일보 2017.06.12

- 부네스코 위원회 <세월의 굳은살, 강강이마을>

부산KBS 2017.05.24

- 공간다큐 그곳 - 소리로 기억되는 마을, 영도 강강이촌

부산MBC 2017.02.16

강강이에술마을을 만든 사람들

부산광역시/영도구

2015년 부산광역시는 예술과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확산을 위해 <예술상상마을>공모를 진행, 최종 선정된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에 총 35억의 시비를 지원하였다. 이에, 영도구는 전체 사업 예산을 관리하며 대평동마을회, 영도문화원,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과 함께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서는 주로 건축 등 하드웨어 조성과 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행정지원을 담당하였다.

대평동마을회

강강이에술마을의 주민 공동체인 대평동마을회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주민공동체로 현재까지 마을유산관리와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마을 발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공동체이다. 10년 이상 거주자를 중심으로 운영위원 16명과 대의원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에 주민 대표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최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여, 현재 마을다방·마을투어 사업 등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다.

영도문화원

영도문화원은 영도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계발과 연구 조사 및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문화단체이다. 현여울문화마을, 절영도 스토리 투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통합방과후 교육센터 등의 사업을 통하여 영도구민의 일체감과 애향심 고취를 이끌고 있다. 강강이에술마을 사업 이전부터 대평동의 역사와 자원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에서는 추진협의회를 이끌어 사업예산의 분배와 관리를 담당하였다.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creative plan b)은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문화예술법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문화정책의 연구와 컨설팅,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교육,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콘텐츠의 개발, 창의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예술가 및 문화단체,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있다.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의 최초 기획에서부터 사업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맡아왔으며, 다양한 연계사업 유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문화기획과 매개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발행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행일 2019년 5월
제작/자료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
디자인 그린그림(박성진, 천지원)

본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 2018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강강이예술마을 사업단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2층

T. 051-418-1863

F. 051-418-1864

ydart2016@hanmail.net

www.kangkangee.com

www.facebook.com/KANGKANGEE2016